이덕일의 '역사의 창'

헌법 개정 논의에서 빠진 것들

아주 오래 전에 한국 법률 체계가 대륙법 체계라는 말을 듣고 의아했던 기억이 있다. 프러시아(프로이센 : 독일) 법체계를 따랐다는 것인데, 우리가 독일과 얼마나 가깝다고 독일 법체계를 따른 것일까?

한국 사회에 의문이 있을 때는 일제 강점기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면 된다. 한국이 대륙법 체계를 따른다는 말은 일제의 메이지 헌법과 법률을 따른다는 뜻이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만든 메이지(明治) 헌법과 법률을 따른다는 뜻이었다.

이토 히로부미는 1871년 11월 이와쿠라 도모미(岩倉具視) 사절단의 일행으로 미국으로 갔다. 미국은 자신들이 개국시킨 나라에서 온 이와쿠라 사절단을 크게 반겼지만 문물 시찰 외의 구체적인 요구, 즉 1854년에 페리 제독과 맺은 치외법권 폐기를 포함한 불평등조약의 개정은 거부했다. 일본은 헌법도 없고 재판도 구미 각국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이것이 조선과 일본의 큰 차이였다. 조선은 물론 고려도 전국에 통용되는 단일한 법체계를 갖고 있었지만 일본은 열도 전체에 통용되는 법체계를 갖고 있지 못했다. 조선은 함경도에서 저지르든 제주도에서 저지르든, 같은 범죄에는 같은 처벌을 했지만 일본은 아니었다. 각 영주가 다스리는 쿠니(國)마다 법이 달랐다.

이토오 등은 헌법을 제정하기로 마음먹고 미국과 유럽의 헌법을 연구했다. 미국은 국민들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나라니 처음부터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영국은 국왕이 있었지만 의회의 권한이 강한 의회 민주주의 국가이니 역시 대상이 아니었다. 이토 히로부미는 1882년 다시 유럽으로 가서 헌법을 연구했는데, 황제의 전제권이 강력했던 프러시아헌법이 마음에 들었다.

이토는 독일 황제 빌헬름 1세를 예방해 "프러시아 헌법이 일본에 모범이 될 것"이라고 말했고, 독일 수상 비스마르크는 독일 헌법학계의 권위자인 베를린 대학의 루돌프 폰 그나이스트(Rudolph von Gneist) 교수를 소개했다. 이토는 독일 헌법을 일본식으로 응용해 메이지 헌법을 만들었다. 하위 법률도 독일식을 따랐다.

이토는 사민평등(四民平等, 모든 백성이 평등하게 자유와 권리를 가지는 일)을 주장하던 민권론자 이타가키 다이스케(板垣退助)의 요구를 일축하고 '대일본제국은 만세일계(萬世一系) 천황이 통치한다'(제1조)고 규정한 메이지 헌법을 만들고, 일왕 메이지는 1889년 2월 11일 국민에게 헌법을 하사하는 헌법 반포식을 했다. 바로 이것이 우리나라가 대륙법을 따르게 된 슬픈 유래다.

더욱 웃기는 것은 일제는 강점 후 한국을 메이지 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점이다. 한국은 메이지 헌법이 아니라 '대권'(大權)에 의해 통치하기로 결정했는데, 대권이란 일왕의 자의로 다스린다는 뜻이다. 일왕이 임명하는 조선 총독이 일체의 입법·사법·행정권을 독점했다. 메이지 헌법을 적용하면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총선거를 실시해 의회를 구성하고, 그에 따라 내각을 구성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조선의 의정부나 대간(臺諫)처럼 국왕의 전제권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도 전혀 없었다.

현행 헌법은 이른바 87년 체제에 의해서 탄생한 것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그간 우리 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었고, 그에 따라 헌법도 달라질 때가 되었다. 조선은 향약 등을 통해서 상당한 정도의 향촌 자치권을 향유하던 사회였고, 법도 이런 정신 속에서 운용되었다.

그러나 일제는 법 시행에서 민중들을 철저하게 배제시켰다. 그래야 독립운동가들을 마음대로 때려잡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문제가 되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독점도 1912년 일제가 만든 조선형사령에서 비롯된 것이다. 헌법을 개정한다면 일제가 아니라 우리 선조의 법철학과 운용 정신을 살려서 국민이 법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가 되게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사회는 아직도 유엔이 정한 각종 인권 조항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 유엔 인권 권고 수준에도 미달하면서 북한 인권을 말하는 것도 모순이다. 헌법 개정 때 이런 점들이 주요 의제가 되어야 할 텐데 그런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 것 같다.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

의료칼럼

닮은 듯 다른 질환 디스크와 협착증

이 동 규
광주세계로한방병원 대표원장

몇 걸음만 걸어도 멈춰 서서 손으로 허리를 만지는 노인들이 종종 눈에 띈다. 대부분 허리 통증 때문일 것으로 짐작된다. 심지어 5분만 서 있거나 걸어도 허리가 뻐근하고 다리가 저리다며 주저앉는 이들도 있다.

최근 현대인들을 괴롭히는 척추질환 발병 사례가 늘고 있다. 요추 질환 중 대표적인 질환이 추간판 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이다. 이들 질환은 증상도 비슷하고 치료도 오래 걸린다. 하지만 이들 질환은 엄연히 다른데도, 환자들은 비슷한 증상 때문에 오해하곤 한다.

환자들이 이들 질환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치료도 쉽다.

추간판 탈출증은 척추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해 주는 타이어 같은 모양의 디스크라는 물질이 제자리를 벗어나 돌출되는 질환이다.

척추관 협착증은 지속된 디스크 탈출로 디스크 자체가 줄어든 질환이다. 디스크 자체가 줄어들어 척추간 사이가 좁아져 신경이 나오는 통로도 좁아지게 된다.

추간판 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은 신경이 압박돼 허리뿐만 아니라 신경을 따라 다리까지 통증을 일으킨다. 환자들은 대개 '땅긴다', '저린다', '무겁다', '찌릿거린다'라고 표현한다. 허리만 아픈 게 아니라 다리까지 통증이 내려가면 신경이 눌렸구나 생각하면 된다.

추간판 탈출증은 허리를 숙이면 통증이 심해지고 척추관 협착증은 허리를 펴거나 뒤로 젖히면 통증이 심해진다. 허리를 숙이면 디스크에 더 압력이 가해져 돌출이 심해지고 뒤로 젖히면 척추 뒤쪽에 위치한 신경 통로가 좁아지기 때문이다.

척추관 협착증 환자는 조금 걸으면 허리가 아파오고 허리를 구부리고 쉬거나 앉아서 쉬면 금방 통증이 줄어든다. 또한 추간판 탈출증과 달리 양쪽 다리로 통증이 나타난다.

추간판 탈출증은 치료만 잘 받고 일상에서 관리만 잘하면 완치가 되는 질환이다. 디스크는 수분으로 돼 있어서 더 이상 새어 나오지만 않으면 나와 있는 디스크는 시간이 지나면 흡수돼 사라지게 된다.

반면 척추관 협착증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줄어든 디스크는 다시 재생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척추 주변의 염증을 없애고 근육을 강화시키는 치료가 필요하다.

척추를 지지하는 주변 근육과 인대를 잘 치료하면 더 오래 걸을 수 있고 통증을 줄일 수 있다. 침과 약침은 근육의 긴장을 풀고 척추 주변의 염증을 줄여준다.

한약은 척추 주변의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해 근육을 강화시키고 통증을 줄여준다. 또한 양방과 협진으로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는 도수치료, 자세를 바로 잡아주는 운동치료, 척추에 걸린 압력을 풀어주는 스파인MT, 심한 통증을 잡아주는 페인스크램블러 등을 이용해 보다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다.

최근 동절기에 접어들면서 날씨가 영하권을 넘보고 있다. 날씨가 추워지면 통증도 악화하는데, 평소 척추·관절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통증 등이 나타난다면 전문 병원을 찾아 조기 진단을 받아볼 것을 권장한다.

기 고

광주에도 수어 교육원 설립돼야 한다

김 상 완
한국농아인협회 광주시협회장

국회에서 오랜 진통 끝에 한국 수화 언어법(한국 수어법)이 2016년 제정되었다. 비로소 농아인도 한국 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자각하게 됐다. 더욱 당당하고 자신있게 수어(手語)를 사용하고 요구할 수도 있게 되었다.

한국 수어법은 새롭고 다양한 정의와 규정을 담고 있다. 법 제3조는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 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농문화' 농인으로서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 양식의 총칭을 말한다는 규정도 있다. '농정체성'이란 농인으로서 가지는 자기 동일성을,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 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는 명문화 규정도 담겨있다.

법 제정과 더불어 수어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어 교육을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고 있어 무척 기쁘다. '손으로 하는 언어'라는 뜻을 가진 수어는 단순한 제스처나 손짓이라는 의미가 강한 기존 수화보다는 언어적 역할에 중점을 둔 의사소통법이다.

그러나 현재 수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수어 통역센터와 그 밖에 장애인 관련 기관 몇 군데뿐인데다, 개강하는 시기 또한 상시가 아니라서 매우 제한적이다. '수어 통역'이란 한국 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 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수어 통역센터 및 그 외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수어 교육 과정(초급·중급·고급 등)을 수료한 사람들은 그 다음 단계로 더 세밀하고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어 거기서 멈출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농문화의 이해를 위한 다양한 교육 과정을 원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11월 한국 수어 교육원이 전국 최초로 경기도에서 문을 열었다. 한국 수어의 올바른 보급 및 농문화의 이해를 위한 다양한 교육 과정 전개를 주로 다루고 있다.

수어 교육원은 단순 교육 기관이 아닌 일자리 연계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원에서 배출한 수어 통역 도우미를 시·구청 민원실에 배치하는 수어 통역 도우미 지원 사업 또한 기대할 수 있다.

이제 광주에도 수어 교육원이 들어서야 한다. 광주시에 거주하는 9000여 명의 청각 장애인의 의사소통의 장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어 가능자를 늘리기 위해서다. 또한, 보다 깊이 있는 수어 교육 과정을 원하는 이들을 위하여 광주시 지역에 수어 교육원이 설립되어야 하는 것은 당위에 가깝다.

특히 가족 구성원들 간에도 소통이 단절될 수밖에 없는 농아 노인의 문제는 더 심각하다. 노인으로 소외되고 장애인 그것도 청각 장애인으로 또 한번 소외되어 우울감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이들을 위해서는 농아 노인 센터의 설립이 시급히 필요한 실정이다.

이 공간이 마련되면 한글을 몰라 불편해 했던 농아 노인들에게 기초부터 단계적으로 지도하는 한글 교실과 웃음과 성취감을 안겨줄 수 있는 그리기, 만들기 등의 다양한 미술 활동 그리고 건강 체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어 교육원과 농아 노인 센터 설립은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번번이 좌절되고 있다. 수어 교육원 설립은 수년 전부터 말이 나온 상황이지만 재정적 문제로 인하여 난관에 처해 있다. 우리 모두가 한 걸음씩만 더 수어와 농아 노인에 관심을 가져준다면 농아인들의 삶이 조금 더 풍요로워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윤리 경영의 가치 널리 알려져야

요즘 들어 반부패, 윤리 등 고등학교 윤리시간에 들어봤을 법한 단어들이 신문지면을 자주 차지한다. 우리 모두 오래 전부터 익숙하게 들어봤던 단어이고, 꼭 지켜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던 단어이지만, 본인들의 좌우명처럼 지속적으로 지키기는 결코 쉽지 않았던 단어일지도 모른다.

우리나라는 올해 1월 발표된 국제투명성기구의 국가별 부패인식 지수에서 100점 만점에 53점을 받아 전체 176개 조사 대상국 중 52위를 차지했으며 이는 OECD 35개 회원국 중 29위에 해당하는 등수이다. GDP기준으로 세계 1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경제 강국 중 하나이지만 청렴, 투명성등 윤리적인 부문에서는 그에 미치지 않는 부끄러운 성적표가 아닌가 싶다.

윤리 경영이란 회사나 조직의 활동에 있어 기업 윤리를 최우선적인 가치로 생각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추구하는 경영 정신을 말한다. 어떤 조직이 아무리 좋은 성과를 낸다고 해도 윤리 의식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잃으면 결국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는 사회적 요구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소비자를 속이다가 결국 파산에 이른 일본의 유제품기업 유키지루시, 대규모 회계조작으로 전 세계인을 속여오다 결국 파산하고 만 미국의 엔론사 등이 대표적인 윤리경영 실패 사례로 제시되며, 현재 존속하고 있지만 비 윤리적인 경영을 일삼는 기업들도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현실이 안타깝기만 할 뿐이다.

농협에서는 이런 윤리 경영을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 '윤리 경영의 날'을 제정했다. 청렴결백한 공직자를 의미하는 청백리라는 단어와 발음이 유사한 11월 2일(1102)을 그 날로 제정하여, 윤리 경영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전 농협 임직원이 청렴리본을 패용하고 근무하는 등 윤리 경영을 널리 전파하고자 하는 운동이다.

윤리 경영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가치이다. 농협 뿐 아니라 모든 조직에 윤리 경영의 가치가 깊숙히 전파되길 기대해본다.

/안익영 농협 안성교육원 교수

社 說

광주·전남 상생 협력 포기해서는 안 된다

광주·전남의 현안 및 공동 발전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출범한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가 어제 열릴 예정이었으나 취소됐다. 올 하반기 회의가 취소됨에 따라 다음 회의는 내년 상반기로 미뤄지게 됐다. 광주와는 달리 전남의 경우 현재 지사 대행 체제라는 점이 연기 요인으로 작용했지 않나 싶다.

민선 6기 시작과 함께 2014년 10월 윤장현 광주 시장과 당시 이낙연 전남지사가 합의해 발족한 상생발전위원회는 크고 작은 갈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상생 의제 1호'였던 광주전남연구원 출범·제2남도학숙 건립·빛가람혁신도시 활성화 등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상생발전위원회는 출범 당시 선정한 19개 협력 과제를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 협의 사안을 30개까지 늘렸으나 8개 과제는 이미 해결하고 현재는 22개 과제를 협의 중이다. 시·도가 상생을 위해 손을 잡았지만 모든 과제가 순탄치만은 않았다. 과제들이 대부분 양 지역의 이해와 밀접한 탓에 광주 남구 도시첨단산단과 나주 혁신산단이 맞붙은 한전에너지밸리연구개발센터 유치 과정에서 갈등을 빚었고, 국립한국문학관 유치·호남권 잡 월드 건립 등을 놓고서도 의견을 달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현안이 양 지역의 미래 발전과 직결되고, 상호 협력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상생발전위원회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한전 공대 위치 선정과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등은 양 시도가 함께 풀어가야 할 최대 현안이다.

상생발전위원회 다음 회의는 내년 상반기로 예정돼 있지만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라 자칫 또다시 연기될 수도 있다. 시·도는 그러나 일정을 조율해서 내년 상생발전위원회는 반드시 열도록 해야 한다. 실·국장들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도 지속적으로 가동해야 할 것이다.

백년하청인 관광지 개발 선택과 집중을

전남 도내 관광단지 가운데 지정 이후 20~30년이 넘도록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고 여전히 진행 중인 곳이 10여 군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밀한 수요 예측이나 투자 계획 없이 장밋빛 계획을 남발해 사업이 표류하거나 한계에 직면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관광지로 지정된 28곳 중 6곳만 준공 승인을 받아 사업이 완료됐다. 조성 사업이 진행 중인 21곳 가운데 30년이 넘은 곳은 담양호, 화순온천, 해남 우수영과 땅끝, 영암 영산호, 장성호, 진도 회동과 녹진 등 8곳이나 된다. 또 지정된 지 20년이 넘은 관광지도 구례 지리산온천, 보성 율포해수욕장, 화순 도곡온천, 강진 대구도요지 등 4곳이었다.

지난 1983년 지정된 영암 영산호의 경우 2009년까지가 사업 기간이었으나 민간 투자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데다 수자원 활용의 어려움 등으로 전시 시설 위주의 운영에 그치고 있다. 강진 대구도요지 역시 당초 2010년까지였던 사업 기간을 내년까지로 연장했으나 숙박 시설 제한과 도예촌 미분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특히 화순 도곡온천은 무인텔 단지가 형성되면서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돼 가족 단위 관광지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상실했다는 진단이 나온다. 구례 지리산온천은 관광특구 지정이라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개발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장기 미준공 관광지가 많은 것은 지자체들이 실현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너도나도 '하고 보자'는 식으로 앞다퉈 개발에 나선 결과다. 콘텐츠 역시 차별화되지 않고 빈약하다 보니 찾는 관광객이 많지 않다. 따라서 관광지별로 추진 실태를 세세히 조사해 실현 불가능한 계획은 배제함으로써 사업을 마무리하고 가능성 있는 곳만 엄선해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교통정리를 해야 할 시점이다.

無 等 鼓

'서점 대상'

올 초 개봉했던 일본 애니메이션 '너의 이름은.'에 이어 이번엔 일본의 한 극영화가 인기몰이 중이다.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라는 파격적인 제목의 영화인데, 벌써 누적 관객 수 45만 명을 돌파했다. 이 영화는 우연히 주운 한 권의 노트 덕에 비밀을 공유하게 된 남녀 고등학생의 이야기를 그린 청춘 드라마로 관객들의 눈물샘을 자극한다.

영화는 일본 '서점 대상' 2위를 차지하기도 했던 동명의 소설이 원작이다. 서점 대상이라면 좀 생소하긴 한데, 일본 문학상의 대표 주자는 '나생문'의 작가 아쿠다카와 류노스케를 기리는 '아쿠다카와상'과 소설가 나오키 산쥬고를 추모하는 '나오키'상이다. 두 상 모두 1935년에 시작됐으니 8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한다.

최근 주목받는 건 2004년 시작된 서점 대상이다. 이름 그대로 신간을 판매하는 서점 직원들이 가장 팔고 싶은 책을 뽑는 상으로, 대상을 포함, 순위를 매겨 모두 10권을 선정한다. 재미있게 읽었던 오가와 요코의 '박사가 사랑한 수식', 릴리 프랭키의 '도쿄 타워', 미우라 시온의 '배를 엮다' 등의 소설이 모두 서점 대상의 대상 수장작이다. 대중성과 작품성을 확보해 대부분 TV나 드라마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서점 대상 수상작을 읽거나 이를 원작으로 한 영화 혹은 드라마를 볼 때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상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베스트셀러 목록만으로는 뭔가 아쉽고, 전문가들이 뽑은 책은 '어렵고 재미없다'는 선입견을 갖는 이들이 많아서다. 국내 문학상 수상작 역시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서 독자들과 가장 가까이 만나는 서점 직원들이 고른 책이라면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도 '서점인이 뽑은 올해의 책'이 발표돼 반가웠다. 한국서점조합연합회는 올해 처음 한자 책(冊) 모습과 책이 책장에 진열된 모습을 본떠 11월 11일을 '서점의 날'로 정하고 올해의 책도 발표했다. 올해 선정작은 '82년생 김지영', '아몬드', '명견만리', '살아남지 못한 자들의 책 읽기', '소리와 몸짓'이다.

올해가 가기 전 선정작 중 한 권 정도는 읽어 봄이 어떨까. 크리스마스나 연말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면 고민을 덜어줄 목록이기도 하다.

/김미은 문화부장 mek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정치부 220-0632 사회부 220-0642 사회2부 220-0652 경제부 220-0663 〈FAX 222-4938〉 문화부 220-0661 문화미디어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사진부 220-0693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7-9500〉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